

조선후기 평민 시가

조선후기 문학사

5주차

담당교수: 김형태

1) 시대적 흐름

1960년대- 식민사관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내재적 발전'

1970년대- 조선 후기 문학에서 근대적 성격 발견하고자 노력

1990년대- 사설시조: 오락성에 주목, 통속적 연구

평민가사: 1970년대 시각, 경향 그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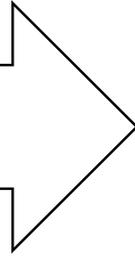
2) 기존 연구의 한계

1. '평민시가'의 담당층의 성격 잘못 파악, 근대적 성격에만 집중
2. '사설시조'의 새로운 연구 시각, 그러나 창작의 원리 구명하지 않음
3. '평민가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 미흡

3) 기존 연구의 대안

1. 창작 원리를 살펴보고, 예술적 성격 구명
2. 작품의 '초점' 파악 및 분석
3. 시적 초점 재정의 (주제 구현 → 제재, 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의 추구)
4. '통속예술'로서의 성격 분석 (담당층 및 발달 조건)

현실비판



남녀문제,
사랑과 향락

(1) <개야미 불개야미>

개야미불개야미존 등부러진불개야미 /

압발에疔腫나고뒷발에종귀난불개야미廣陵심재너머드러가람의허리를 ㄱ르무러추혀들고北海를건너닷
이이셔이다님아님아 /

온놈이온말을 ㅎ여도님이짐작 ㅎ쇼셔

개미 불개미 등뼈 부러진 불개미 /

앞발은 헐고 뒷발은 굶은 불개미가 광릉 샘재를 넘어들어 호랑이의 허리를 질러물어 치켜들고 북해를 건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님이시여 님이시여 /

온갖 사람들이 온갖 가지 말을 하여도 님께서 가려들으소서

· 기존 분석과 새로운 시적 초점

(1) <개야미 불개야미>

남의 말을 쉽게 믿지 말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조리한 상황 설정, 과장
동의어 (정종, 종귀),
이의어 등의
언어유희를 통한
해학적 재미 추구

(4)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터비^ᄃ파리를물고^ᄃ두힘우희치^ᄃ라안자

것년山^ᄃ바라보니^ᄃ白松^ᄃ뼈이^ᄃ써잇^ᄃ거^ᄃ놀^ᄃ가^ᄃ슴이^ᄃ금^ᄃ즉^ᄃ여^ᄃ플^ᄃ덕^ᄃ쉬^ᄃ여^ᄃ내^ᄃ똥^ᄃ다가^ᄃ두^ᄃ힘^ᄃ아^ᄃ래^ᄃ쟈^ᄃ바^ᄃ지^ᄃ거^ᄃ고

모^ᄃ쳐^ᄃ라^ᄃ놀^ᄃ낸^ᄃ널^ᄃ식^ᄃ만^ᄃ정^ᄃ에^ᄃ혈^ᄃ질^ᄃ번^ᄃ과^ᄃ라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더미 위에 뛰어올라 앉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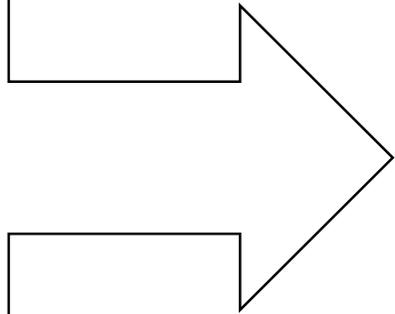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송골매가 떠 있어서 가슴이 섬뜩하여 펄쩍 뛰어 내리다가 두엄더미 아래 자빠졌구나

마침 내가 날래기 망정이지 멍이 들뻔 했구나.

- 기존 분석과 새로운 시적 초점
(4) <두터비 파리를 물고>

평민(파리)
지방관리(두꺼비)
송골매(중앙관리)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지방관리 풍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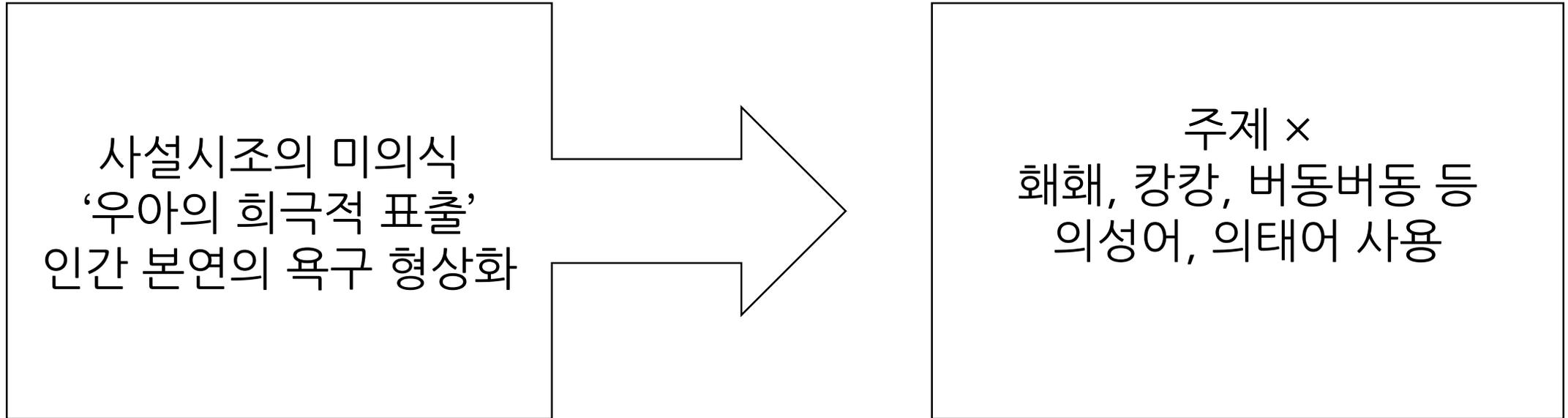
중장의 '플덕 뛰어' 와 같이
의성어, 의태어를 통해
두꺼비의 모습을 재미있게
표현

(9)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요 개 꾀치 얹피오랴.
뛰온 님 오며는 쏘리를 화화 치며 썩락 누리 썩락
반겨서 내뺏고, 고온 님 오며는 뒷발을 버둥버둥
므르락 나으락 캉캉 즈져서 도라가게 한다.
썩밥이 그릇그릇 난들 너 머길 줄이 이시랴.

개를 열 마리 넘게 기르지만 요 개처럼 얹미운 놈이 있을까?
미운 임이 오면 꼬리를 화화 치면서 뛰었다 하면서
반기며 내닫고, 사랑하는 임이 오면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었다 놓았다 하다가 캉캉 짚어 돌아가게 한다.
썩 밥이 여러 그릇 나오더라도 너 먹일 줄이 있으랴?

- 기존 분석과 새로운 시적 초점
(9)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



(15)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북풍도 쉬어 넘는 고기,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기.

山(산)진이 水(수)진이 海東靑(해동청) 보리리도
다 쉬어 넘는 高峯(고봉) 長城嶺(장성령) 고기.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훈 번도 쉬어 넘어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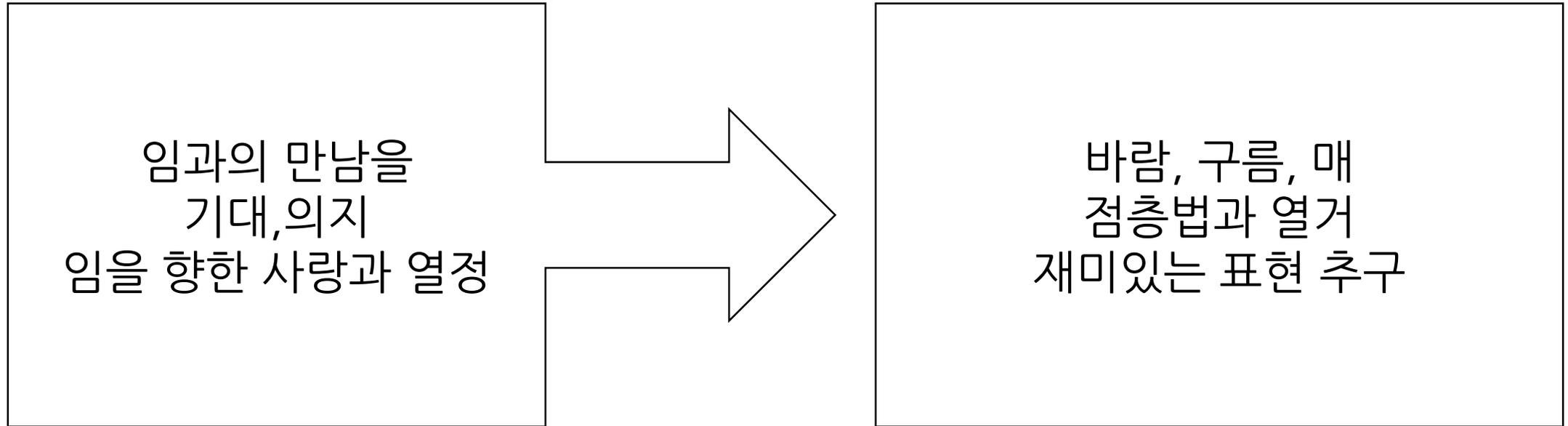
바람도 쉬어 넘고 구름도 쉬어 넘는 고개.

산에서 자란 매나, 집에서 가른 매나, 송골매, 보라매라도

다 쉬어 넘는 높은 봉우리인 장성령 고개.

그 너머에 임이 왔다 하면 나는 쉬지 않고 단숨에 넘어가겠다.

- 기존 분석과 새로운 시적 초점
(15) <바람도 쉬여 넘는 고개>



(17) <시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시어마님며느라기낫바벽바흘구르지마오

빛에바든며느린가갑세쳐온며느린가밤나모서근들겘에회초리나니궂치알살픽션식아바님벗뵤싯동궂치
되종고신시어마님三年겨론망태에새송곳부리궂치뽕족궂신식누으님당피가론밭티돌피나니궂치시노란
윗궂궂튼피뽕누논아돌궂나두고
건밭티멧궂궂튼며느리를어디를낫바궂시논고

시어머님 며느리가 싫다고 부엌 바닥을 발로 광광 구르지 마십시오

빛 대신으로 받은 며느리니까 값을 주고 사온 며느리니까 밤나무 썩은 등겘에 회초리처럼 매서운 시아버님 별
을 찢 쇠똥같이 비쩍 마른 시어머님 삼년(三年) 찢 망태에 새 송곳의 부리같이 뽕족한 시누이님 당피를 심은 밭
에 돌피가 나는 것같이 노란 오이꽃 같은 피똥 누는 아들 하나두고

- 기존 분석과 새로운 시적 초점
(17) <시어마님 며느라기 낮바>

인간 본능의 자연스러움,
며느리를 막대하는
시어머니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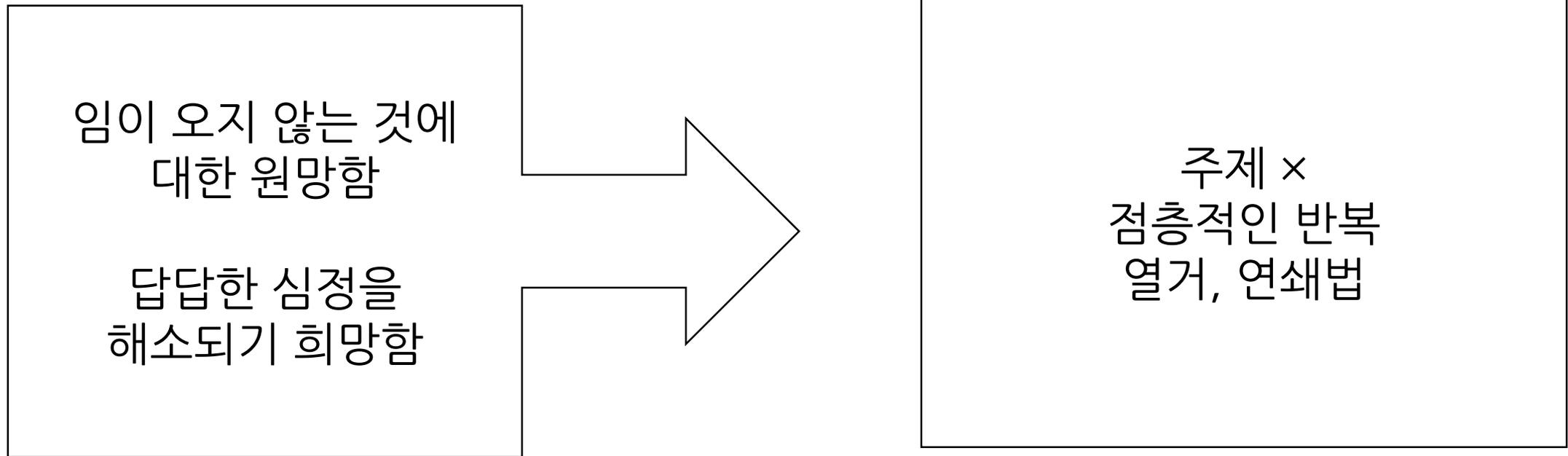
시댁 식구들을
과장된 비유, 열거
해학적인 표현

(19)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窻(창) 내고자 窻(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窻(창) 내고자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송닥 바가 이내 가슴에
窻(창) 내고자 /
잇다감 하 답답홀 제면 여다저 볼가 ㅎ노라

창을 내고 싶다 창을 내고 싶다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저귀, 수돌저귀,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
가끔 몹시 답답할 때면 여달아볼까 하노라

- 기존 분석과 새로운 시적 초점
(19)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 사설시조 작품의 시적 초점

풍자, 현실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평민시가’를 분석해보면,
주제가 뚜렷하지 않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
대다수 사설시조 작품들의 시적 초점은 제재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 추구

- 근거

- 1) 주제의 중요성이 낮음
- 2) 작품 내 요소, 주제의 구현을 위한 통일성
- 3) 현실비판, 나타나지 않거나 부차적 역할
- 4) ‘교정’ 보다는 ‘웃음’, ‘조롱’ 을 통한 즐거움 추구

· 조선 후기 ‘사설시조’의 창작원리

*화제(이야깃거리) ≠ 주제(지은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기본 사상)

‘남녀문제’ ‘사랑과 향락’ 를 주요 화제로 제재·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을 추구

사설시조 = 가곡창의 (희롱할) 농, (즐길) 낙, (엮을) 편 등의 곡,

시조창의 ‘4음보격 3행’ 시조형의 범위를 지칭

‘시조의 파형 또는 변종’ = 시조형에서 중장이 길어진 작품들

‘단편시가’ ‘중편시가’ ‘장편시가’ (4행 이상으로 대체로 6행 이내)

· 조직화 방법

1) 제재 · 소재에 대한 진술 확대

2) 논의를 확장하는 부연

(열거, 대구, 반복, 점층법 → 편폭이 길어짐)

‘단편시가’ = 순간적인 정서적 체험, (응축적, 집약적 표현 사용)

단일한 시상, 정조를 지님.

≠ 사실시조는 부연으로 확장을 이루었기에 응축적, 집약적 표현이 어려움.

‘중편시가’ = 정서적 체험 + 대상의 특성 설명, 교시

≠ 주제의 구현이 아닌 제재를 진술하는 방식으로 길어짐.

‘장편시가’ = 가사와 비슷한 성격

‘유형화된 공식적 형식’ 효과

1. 지적인 노력 없이도 쉽게 접근, 향수. 진입장벽 ↓
2. 관습에 길들여진 이들에게, 편안함 제공
3. 도식적인 형식을 통해 자극적인 내용도 불편함 없이 즐김
4. 내면의 방어적인 긴장 이완, 몰입도 ↑

‘부조리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상황 설정’, ‘언어유희’
→ 희극적 효과 제공

1) '평민시가'의 담당층과 그 성격

사설시조 주된 담당층이자 작자층 = 중인 (의생, 역관, 서리 등)

사설시조, 현실과 밀접, 하지만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함

→중인의 양면성

평민가사, 교육을 받지 못한 상민들이 짓거나 즐기기 어려운 수준

∴ 문학, 계급적 성격을 반영,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 비판하면서도
체제순응적, 개인의 삶을 표현

2) '평민시가'의 발달조건

1. 경아전 (중양관서의 아전) = 경제적 부유, 소비적인 생활 → 유흥 (기방)

2. 사설시조는 가객들에 의해 공연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됨

3. 기방, 양반, 부자 들이 마련한 공간, 가객 모임 등에서 불림

4. 가곡창 중, 농, 낙, 편의 곡, 무명씨의 우스꽝스럽고 외설적인 내용의 작품들은

사설시조를 노랫말로 사용(오락적 기능 수행, 평민가사의 향수양상은 뚜렷이 알기 어려움)

2) '평민시가'의 발달조건

6. 기방이나 잔치자리에서 노래로 불리지 않았을 가능성 존재
(〈낙민가〉, 〈노고가〉 등 작자 층이 불분명한 작품들)
7. 비연체 장편가사인 가사, 음악적 성격이 약하다.
(시편이 큰 〈우부가〉, 〈노처녀가〉등 가창이 아닌 완독)
8. 중인, 서울을 중심으로 형성된 놀이문화 속에서 향수

(사설시조 보다는 낮지만 오락적인 기능 수행)

(1) <우부가>

네 말슴 광언(狂言)인가 저 화상을 구경허게. / ~ /
포청 귀신 되엇는지 뜻도 보도 못헐네라.

(2) <용부가>

흉보기가 슬타마는 저 부인의 거동 보소 / ~ /
무식헌 창생(蒼生)들아 저 거동을 자세보고
그른 닐을 알았거든 고칠 改(개)자 힘을 쓰소
오른 말을 들엇거든 행하기를 위업헐지어다

작품 설명

1. 개인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비판, 경계, 교훈을 주려 한 작품
2. 이면적으로 기존관념에 대한 도전 표현
3. 대상 희화화를 통해 우월감을 만족시키는 반주자주의적 흥미

표면적 주제

→ 반인륜적인 행위를 경계함

시적 초점

→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 해학적 즐거움 추구

(3) <노처녀가>

人間世上 사름들아 이내말숨 드러보소 / ~ /

아마도모던목숨 죽디못 허怨讐-로다

(4) <거사가> (*거사: 도덕과 학예가 깊고 바르면서도 숨어살며 벼슬을 아니하는 선비)

어화 그 뉘신고 어디로셔 오신는가

턴상 빅옥경을 엇지하여 리별하고

이내 산중 김흔 곳에 뉘를 좃즌 오시는가 / ~ /

이 세상 다 진커든 후생길을 닥그리라

(3) <노처녀가>

→ 인물 설정의 사실성 결여, 과장을 통해 해학적 즐거움 찾음

(4) <거사가>

→ 인물의 비행을 희화화, 해학적 즐거움 찾음

표면적 주제

→ 기존 관념에 대한 도전 표현, 인물 타락에 대한 풍자

시적 초점

→ 재미있는 표현을 통해 해학적 즐거움 추구

(5) <백발가>

춘일이 노곤하야 초당의 누엇더니/ ~ /
슬푸다 청춘네들
물내 경상 볼짝시면 그 아니 무셔운가
광음을 허송 말고 늘기 전의 힘써 허소

(6) <노인가>

崑崙山(곤륜산) 낙린脈(맥)의 王嶽(왕옥)이 中興(중흥)하니
아마도 먹고 쓰고 노는거시 豪傑(호걸)인가 호노라

(5) <백발가>

→ 젊을 때 노력해라

(6) <노인가>

→ 젊을 때 실컷 먹고 놀아라

같은 소재, 제재 하지만 상반된 주제 제시

시적 초점

→ 제재 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

· 평민 가사의 창작 원리

1. 시적 초점이 주제의 구현보다는 제재, 소재에 대한 표현에 초점을 맞춘다
2. 그 형상이나 성질을 묘사하여 희극적 효과를 추구. 부정적 희화화 사용 경향 높음.
3. 유형화된 공식적 형식 많이 사용

*부정적 희화화: 과장을 통한 부정적 형상화 위주의 양상

1) 조선 후기 평민시가와 통속예술

· 평민시가

1. 얼치기 교육을 받은 중인들에 의해 지어짐. 서울과 그 부근
2. 오락, 위안에 목적을 둠
3. 중인들의 계층적 성격 반영(체제 순응적/현실에 대한 불만)
4. 사설시조에서 향수자와 작자층이 구분되는 양상 보임

1) 조선 후기 평민시가와 통속예술

· 통속예술이 보이는 전형적인 양상

1. 얼치기 교육을 받은 도시 거주자들에 의한 통속예술
2. 오락과 기분 전환 등을 목적
3. 소시민적, 중산층적인 이데올로기 지님
4. 감상층과 전문적인 생산자가 구분되는 경향

2) 통속예술적 양상과 성격

· 이데올로기

1. 중간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권리를 이야기 함
2. 작품을 통해 현실비판이 아닌 소시민적인 만족을 추구했음(현실도피)
3. 부유한 상민은 자신을 중인과 동일시 하여 만족감 얻음

· 기능, 의의

1.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효과
2. 소시민적이고 중산층적

· 평민시가의 특징적인 표현양식들이 지니는 성격

1. 유형화된 공식적 형식 사용.
2. 통속성의 하위범주 중 웃음의 해학성이 가장 두드러짐
(웃음의 해학성, 성의 관능성, 폭력의 선정성, 몽상의 환상성, 눈물의 감상성)
3. 사설시조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스꽝스러운 불일치의 성격(의표를 찌르는 충격효과)
4. 평민가사에서 많이 나타나는 부정적 형상화와 비웃음 (악의적/연민, 사랑)
5. 사설시조의 언어유희적 표현

- 결말식 재담

1.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음
2. 독자에게 추론, 직관 등을 통해 의미 파악을 요구

- 장점

1. 지적 희열
2. 성에 관한 내용을 체면 손상 없이 표현 가능
3. 동류의식, 연대감 확인

*경시가

오락 본위의 시가. 유희에 정신을 둠

특징

사소한 주제, 경솔한 처리. 세련됨, 우미함을 갖춤

→ 사설시조와 평민가사 역시 경시조 적인 성격 지님

1. 시적 초점을 제재, 소재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 추구
2. 유교적 이념, 질서 반영이 적음
3. 담담층이 중인
4. 통속예술로서의 성격을 지님

→ 조선 후기의 평민시가는 이전의 시가와는 뚜렷한 구분, 발전

교재 및 참고문헌

1. 성호경 편, 『조선후기 문학의 성격』, 서강대출판부, 2010.

- 참고자료 김학성, 「사설시조의 형식과 미학적 특성」, 『어문연구』3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2
- 참고자료 성호경, 「조선 후기『平民詩歌』의 시적 초점과 창작원리 : 조선 후기『평민시가』의 시적 초점과 통속예술적 성격(1)」, 『어문학』105, 한국어문학회, 2009
- 국문학의 탐구 (김학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김학성, 원광대학교출판국, 1980)
- 주해가사문학전집 (김성배 외, 집문당, 1961)